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10 회

개회식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27일 (금) 오전 10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총무담당관 송석근)

(10시 02분 개식)

○총무담당관 송석근 지금부터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광영교 의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광영교 존경하는 153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

다.

먼저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회의 슬로건을 실천하며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신 의원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기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비상근무는 물론, 폭염이 기승을 부린 여름철 에너지절약 추진 등에 고생을 많이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금번 제210회 임시회는 28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임시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장단점을 꼼꼼히 챙겨 좀 더 유익한 안건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 일류브랜드 삼성 이건희 회장은 그룹 직원들에게 늘 자리이타 이타자리의 삶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남에게도 이롭고, 남에게 이로운 것이 자신에게도 이롭다는 불교정신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기업은 늘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또한 이와 같아서 시민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리이타 이타자리의 마음으로 시민에게 이로운 길을 찾아 함께 노력한다면 결국 153만 시민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지난 1월 계사년을 시작하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함하여 여러 굵직한 현안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와 추진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중대한 해입니다.

특히 여러 논란 속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된 과학벨트사업은 무엇보다도 시기가 중요한 특성을 가진 만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대학 개교와 스카이라드 개장으로 이제 원도심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원도심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도청사 활용과 원도심의 전반적인 활성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높은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청명하고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킬 여러 행복축제가 가득합니다.

이미 시작된 2013 국제기타페스티벌과 곧 다가올 2013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등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축제에서 더욱 행복한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무담당관 송석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폐식)